



김 은 규

〈 통상산업부 액화석유과장 〉

LPG사용량을 제품별로 보면 프로판이 전체 사용량의 66.7%인 3,846천톤, 부탄이 33.3%인 1,915천톤을 사용하였으며, 용도별로는 가정이나 업소의 취사난방용이 전체 수요의 41%인 2,378천톤, 도시가스용이 17%, 운수용이 27%, 기타 산업용 및 공업원료용으로 15%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급

수요의 76.4%인 4,578천톤을 수입사용하고, 23.6%인 1,414천톤을 국내 정유사에서 생산공급하였다. 특

1. '96년도 LPG 수급실적

전년대비 3.0% 증가한 5,761천톤으로 소비량에서는 세계 6위의 소비국

LPG 수급동향과 정책방향

(1) 수요

'96년 우리나라의 LPG 사용량은

이고, 수입량은 4,578천톤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LPG 수입국이다.

히 부탄의 국산공급비중은 49%인 반면, 프로판은 11%에 불과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유사의 생산은 그간 정제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95년보다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1 〉 '96년 LPG 수급실적

(단위 : 천톤.%)

	프로판			부탄			계		
	1995	1996	증가율 (%)	1995	1996	증가율 (%)	1995	1996	증가율 (%)
수요	3,745	3,846	2.7	1,848	1,915	3.6	5,593	5,761	3.0
(수출)	143	166	16.1	105	133	26.7	248	299	20.6
생산	357	435	21.8	1,068	979	△8.3	1,425	1,414	△0.8
	3,502	3,562	1.7	895	1,016	13.5	4,397	4,578	4.1
	계	3,859	3,997	3.6	1,963	1,995	1.6	5,822	5,992

2 국내외 여건

〈표 - 2〉 용도별 사용실적

(단위 : 천톤)

	프로판		부탄		계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가정상업용	2,302	(59.9)	76	(4.0)	2,378	(41.3)
도시가스용	950	(24.7)	-	(-)	950	(16.5)
운수용	58	(1.5)	1,523	(79.5)	1,581	(27.4)
기타	536	(13.9)	316	(16.5)	852	(14.8)
계	3,846	(100.0)	1,915	(100.0)	5,761	(100.0)

※ ()는 구성비

〈표 - 3〉 96년 업체별 공급 및 내수판매 실적

(단위 : 천톤)

	수입 및 생산			내수판매		
	프로판	부탄	계	프로판	부탄	계
L G 가스	1,242	498	1,740	695 (18)	196 (10)	891 (15)
유공가스	2,046	518	2,564	1,048 (27)	229 (12)	1,277 (22)
유공	104	324	428	1,197 (31)	628 (33)	1,825 (32)
L G	104	224	328	565 (15)	462 (24)	1,027 (18)
환화	54	130	184	76 (2)	133 (7)	209 (4)
쌍용	85	177	262	168 (4)	211 (11)	379 (6)
현대	67	122	189	97 (3)	56 (3)	153 (3)
기타	21	2	23	-	-	-
계	3,723	1,995	5,718	3,846 (100)	1,915 (100)	5,761 (100)

※ ()는 시장점유율

〈표 - 4〉 세계 LPG 수급현황

(단위 : 백만톤)

	1993	1994	1995	1996	1997
○ 수요					
- 유럽	26.5	27.4	27.9	28.2	29.9
- 극동	29.4	30.5	31.4	32.7	33.2
- 중동	5.4	6.9	7.3	7.9	8.5
- 북미	51.7	55.3	55.7	55.9	57.5
- 남미	21.3	22.1	23.1	23.9	24.8
- 기타	20.4	21.8	22.4	24.2	26.2
계	154.7	164.0	167.8	172.8	180.1
○ 공급					
- 유럽	19.1	22.3	22.5	22.5	22.5
- 극동	8.8	9.1	9.3	9.9	10.3
- 중동	29.4	31.1	31.9	33.4	34.2
- 북미	52.6	53.3	54.2	54.7	55.4
- 남미	19.1	20.8	21.4	22.7	23.7
- 기타	26.8	27.1	27.5	29.6	34.0
계	155.5	163.7	166.8	172.8	180.1

(1) 세계 LPG수급 및 가격

'96년 세계 LPG 사용량은 172.8 백만톤으로 95년보다 3% 증가하였다. 공급물량중 60% 정도가 천연가스 처리과정에서 나머지 40%는 원유정제과정이나 석유화학부산물로 생산 공급되었으며, 지역별로는 북미 54.7백만톤(31.6%), 중동지역 33.4백만톤(19.3%), 유럽 22.5백만톤(13.0%) 기타 아시아 및 중남미 등에서 생산되었다.

향후 세계 LPG수요는 90년 이후 연평균증가를 4.4% 보다는 약간 낮은 3~4% 정도의 증가를 보여 2000년에 약 203백만톤이 될 것으로 「World Trade in LPG 1996. 3」은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도의 수요증가와 세계적인 환경보호운동 등이 LPG 수요증대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 LPG시장은 대부분 지역이 비교적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태지역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수입물량중 50% 정도를 사우디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구조의 취약성이 큰편이다. '94년도의 세계 LPG교역량은 40백만톤으로 이중 중동지역에서의 수출물량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량의 50%인 19.2백만톤을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하였다.

국제 LPG 가격은 '94. 10월부터 사우디 아람코사가 유가연동제방식에서 현물시세를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산정, 통보하는 CP가격방식으로

전환한 이래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97. 1월 330\$/톤까지 상승하므로써 80년초의 프로판 315\$, 부탄 330\$수준을 넘어선 초유의 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격상승세는 97. 2월을 고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요이탈 하절기 영향 등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LPG 가격추이

(단위 : \$/톤, FOB)

'90	'94	'95	'96	'97. 1
143	122	178	193	330

(2) 국내 LPG수급 및 가격

국내 LPG 수요는 70년대 이후 90년대초까지 연평균 15~20%선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가스보급율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으며 ('95년 98.3%), LNG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국제 LPG 가격의 상승으로

<표 - 7> LPG 가격조정내용

		종전	조정	증가율(%)
○ 공장도가격 (세후)	· 프로판			
	- 일반용	255.89	345.89	35.2
	- 도시가스용	211.46	309.04	46.1
	· 부탄	255.24	345.24	35.3
○ 충전소가격	· 프로판	354.80	444.80	25.4
	· 부탄	330.00	420.00	27.3
	· 프로판	510.00	600.00	17.6

인한 수요감소 등의 영향으로 '94년부터 5% 수준으로 수요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LPG 수요는 '95년 5,593천톤에서 2000년에 6,423천톤, 2005년에 7,610천톤, 2010년에 9,448천톤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용도별로는 도시가스용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가정난방용과 산업용 및 운수용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LPG 가격은 유통단계별로 정부가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LPG 수입사의 판매가격은 LPG 도입가에 운송비 등 제비용 및 자본금에 대해 세후 10%의 이윤을 인정하는 선에서 책정하고 있으며, 충전소, 판매점의 판매가격도 구입비와 제비용 및 적정이윤을 인정하는 선에서 책정하고 있다.

'72.7월 LPG 공장도가격은 프로판이 42.27원/kg, 부탄이 30.37원/kg이었으나, '97. 3.25일 현재 프로판 345.89원/kg, 부탄 345.24원/kg으로 상승하였으며, 3.25일 조정된 유통단계별 가격은 <표 - 7>과 같다.

<표 - 5> LPG 수요추이

(단위 : 천톤)

	1970	1975	1980	1985	1990	1996
수요	37	150	392	1,234	3,020	5,761
연평균증가율(%)	-	32.5	21.2	25.8	19.6	11.3

<표 - 6> 장기수요전망

(단위 : 천톤, %)

	수요				증가율		
	'95	2000	2005	2010	'95~2000	2000~2005	2005~2010
프로판	3,745	3,998	4,605	5,911	1.3	2.9	5.1
부탄	1,848	2,425	3,005	3,537	5.6	4.4	3.3
계	5,593	6,423	7,610	9,448	2.8	3.4	4.4

3. 정책방향

LPG는 전국 가구의 약 70%가 취사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민생용 필수연료인 만큼 모든 국민이 값싸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다.

현 우리나라의 LPG산업은 국제 LPG가격 및 인건비, 운송비 등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

WTO체제 출범에 따른 유통시장의 개방압력, LNG보급확대 등으로 인한 수요 정체, 업체간 과당경쟁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점점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LPG는 이동이나 사용의 편리성 등 다른 에너지에 비교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너지 안보차원이나 서민연료의 안정공급차원에서도 LPG산업은 계속 육성·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부는 LPG사업자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안정공급기반의 구축, 유통체계의 개선 및 가격자율화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 안정공급기반의 구축

우리나라의 LPG수급구조는 수요

의 75%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수입량의 대부분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기반이 취약하고, 동절기의 수요가 하절기의 2배이상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항상 수급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6년말에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정부비축시설을 160천톤에서 360천톤으로 증설 완료하고, 민간 LPG수입사의 수입기지 증설사업을 '94년부터 착수하여 '9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기지가 완공될 경우 민간비축목표인 30일분을 달성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유통체계의 개선

LPG는 2개의 수입사와 5개의 정유사가 생산과 수입을 담당하고 있

으며, 도매부문은 충전업소가, 소매부문은 LPG판매업소가 담당하고 있다. 1996년도말 현재 프로판충전소 225개, 부탄충전소 440개, 용기판매소 5,444개가 영업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충전소가 종업원 50인 정도이고, 판매업소는 종업원 5인이하가 대부분으로 영세한 수준이다.

유통업체들의 영세성과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가 문란하고, 용기취급에 따른 인력난, 교통난 등이 가중되고 있으나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안전관리나 서비스개선이 미흡하여 LPG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실정므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LPG사업자들의 질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유통구조의 변화는 다수 영세한 사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경제외적인 이유에서 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허가제로 되어있는 충전업, 판매업, 집단공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업소간 또는 업계간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을 유도하고, 체적판매의 실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체적판매제의 시행을 위하여 '97. 2.14일 액화석유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97. 2월부터는 모든 신축건물에서 반드시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적설비

〈표 - 8〉 LPG 비축·수입기지 확충계획

(단위 : 천톤)

		기존	확충	계	비고
정 부	프로판	90	200	290	'96.12월 완공
	부 탄	70	-	70	
	소 계	160	200	360	
민 간	LG가스	153	240	393	'99년 완공목표
	프로판	84	200	284	
	부 탄	69	40	109	
	유공가스	270	190	460	
	프로판	140	150	290	
	부 탄	130	40	170	
	소 계	423	430	853	
	계	583	630	1,213	

를 설치토록 하였다.

또한 기존건축물중 음식점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98. 1월부터, 공동주택은 '99. 1월부터, 그리고 단독주택은 2001. 1월부터 체적거래제를 의무화시킬 계획이며, 체적판매제가 정착될 경우 소비자에 대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고객만족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계획배달과 고정적 거래처 확보를 통해 경영개선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가격 자율화 기반 조성

국내 LPG가격은 보급초기에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방

향으로 LPG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통단계별 가격을 정부가 고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가격고시제는 LPG 보급 및 LPG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국내 LPG 업계는 특별한 경영상의 인센티브가 없는 가운데 제품의 품질경쟁도 없고, 서비스경쟁도 미미한 면을 보이면서 업계발전을 위한 자체노력도 피동적이며 한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97년부터 석유제품의 가격이 자율화되었고 LPG 유통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의 많은 부분이 가격 규제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LPG

가격자율화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한편, LPG 가격의 자율화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반면 수입기지 등 저장시설의 부족한 공급독점의 시장구조하에서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안전관리의 소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LPG 가격자율화로 초기단계에 예상되는 시장교란 현상이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LPG업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LPG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

금융채무상식

금융자산증여시기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예금을 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융실명제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명이나 가명으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차명예금임이 드러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해 99% (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명으로 예금을 하거나 주식 채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현행 세법상 증여공제액은 5년간 3천만원(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1천5백만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5년마다 3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3천만원씩 5년마다 예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이런 형태로 3천만원씩 4번 증여를 한다면 20년후엔 원리금을 합쳐 약 1억5천만원이 될 것이다. 이 돈으로 자녀에게 3천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1억5천만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증여공제액 3천만원을 뺀 1억2천만원에 대해 1천4백만원(1억원×10%+2천만원×2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 5년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예금을 가입하는 시점에 실제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세를 내지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과세당국

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세법은 상속·증여세율이 현실화되어 거액의 증여가 아니면 세율이 그리 높지 않다. 즉 과세표준이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40%, 50억원 초과는 45%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5년마다 증여하고 그때마다 세무서에 증여세를 조금씩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5세의 자녀에게 1천5백만원씩 5년마다 증여목적으로 예금가입을 해준다면 그때마다 10만원 (1백만원×10%)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